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캘리포니아, 샤스타 마운틴 근처에 위치한 레딩이라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기 위해선 4시간을 차로 달려야 하는데 4시간동안 들판, 나무, 도로만 보여요. 레딩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 아시아계 사람들은 아시안 마트 사람들과 저희 말고는 없었습니다. 주거지인 샤스타 컬리지의 기숙사에서 생활용품이나 쇼핑,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현지 친구 도움이 없으면 학교에서 나가는 건 어려웠어요. 버스는 안 타봤지만, 선생님들과 현지 친구들도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학교는 우리보다 규모는 크지만 주로 1층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청설모와 야생 고양이들이 뛰어다니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여름 레딩은 주로 42도까지 올라가는데 햇볕은 뜨거워도, 습하지 않아서 아주 버틸만했어요. 태닝하기 딱 좋아요. 선크림 필수. 그리고 기숙사와 강의실, 식당 모두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뽕뽕하게 틀어주니 겉옷은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불편했던 것은 물을 사 마셔야 했던 점입니다. 식당과 기숙사 휴게실에서 나오는 물도 얼음이 없으면 못 마실 정도로 수돗물 소독약 맛이 강했습니다. 미국은 정수기가 없고 개수대가 있는 데 좀 찝찝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공동구매 해서 사서 마셔야 했습니다. 자판기에서 파는 물은 무조건 1.75달러로 비싸요.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다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하고 다정한 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난 현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입니다. 모두 굿리스너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아는 단어들과 바디 랭귀지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친구들이 다 알아들어주고 즐겁게 대화를 이어줍니다.

수업	웹디자인 수업은 거의 매일 있었는데요. 9시부터 12시까지 이른 시간부터 3시간 연강을 한다는 점만 아니라면 선생님이었던 Brad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딩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웹페이지가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조금만 잘 따라와도 개인만의 작은 아이디어를 비추기만 해도 칭찬 기계처럼 잘했다고 복 돌아 주십니다. 워낙 개방적이라 수업 계획이 여유로워 다같이 K-pop뮤직비디오를 보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곤 했습니다. ESL 수업이 필드트립 다음에 있지만 많았다면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업이 너무 뻘뻘하고 빨랐기 때문에 학교측에 말해 조율을 하긴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영어를 가르치는 마음이 워낙 열정적이시고 욕심이 많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시간 마다 짝이 바뀌어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준은 쉬운 편이지만 발표가 위주인 수업이라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데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때 조금 도움이 됐어요.
필드트립	필드 트립은 대부분 점심을 먹고 바로 출발했는데요, 햇볕이 굉장히 뜨거울 때 돌아다녀서 발등에 샌들 라인이 선명할 정도로 엄청 많이 탔어요. 어디를 가든 물은 챙겨 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풀파티와 워터웍스라는 워터파크에 갈 때는 수영복이 필요한데 미국이라 그런지 레쉬 가드를 입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레딩 내에서나 레딩 근처로 필드트립을 갈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는 사고 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챙기는 게 좋았습니다. 샤스타 레이크나 댐을 건설하기 위해 이주민들이 레딩이란 도시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필드 트립은 우리가 여행 온 곳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와 다니니 가이드가 빠르게 말해서 놓친 부분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평소에 그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특히 제 룸메이트는 역사나 여러가지 문화적 부분에 대해 박식해서 더욱 유익했습니다. 현지인 친구와 다니는 것만큼 여행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보다 온도가 높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원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합니다. Sun burn에 쉽게 노출되고 피부가 난리가 나서 알로에 수딩젤을 챙겨올 걸 하는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어딜가든 에어컨이 빵빵하기에 겉옷은 필수였습니다.
안전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녔기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지 친구들 말로는 꼭 2명 이상이서 다니고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 마트 같은 데에 가서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조심이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당한 적이 없지만 레딩에는 백인이 많다 보니 인종차별이 꽤 있다고 합니다.
숙소	2층 짜리 기숙사를 저희가 다 썼는데요. 반으로 갈라 남녀로 나누고 가운데 미들룸에서 수다를 떨거나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건물로 넘어가면 휴게실고 주방이 있어 저녁이나 야밤에 맛있는 걸 해먹었습니다. 재료는 마트에서 사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준비해준 것이 있어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아시아 마켓에 가도 한국 음식이 신라면, 불닭볶음면, 피클 같은 김치 빼곤 없었기 때문에 고추장은 꼭 가지고 가서서 미국 친구들에게 맛난 음식 맛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 룸메는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어했는데 떡이 없어서 못해줬어요.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대체적으로 미국 음식들이 너무 짜고 달아서 중간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학교식당은 매일 고정적인 과일, 샐러드가 있고 메인 메뉴가 있는데요. 5일 루틴으로 돌아옵니다. 햄버거, 베이컨&에그, 빵, 맥시칸... 처음엔 먹을 만하다가 점점 질려요. 현지 친구들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밖에서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서 생

교통	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버스가 있다곤 하는데 다들 추천하지 않아 현지 친구들 차 얻어서 타고 다녔어요. 걸어서는 절대로 못 다녀요. 우버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버를 탄다고 하면 차 있는 친구들이 나서서 데려다 줬어요. 친구들이 워낙 착해서 부탁하면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게 고마워서 밥이나 간식같은 걸로 보답하곤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400,000	개인 구매
ESTA	14,000	개인
식비	250,000	저녁이나 주말 등
선물, 기념품	300,000	샤스타몰 가면 살게 은근 있어요
합계	1,99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미국 동전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산원한테 계속 미안하고 민망해한... 익히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지인 친구들을 위해 선물 넉넉히 챙겨가기. 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챙겨간 것이 너무 마음에 안 좋았어요. 주변에 가고싶은 곳 찾아봐도 딱히 없으니 가서 현지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주말 여행 계획 짜는 게 좋고요. 사정이 된다면 세크라멘토 추천해요. 운전으로 3시간 거리이지만 저는 룸메 가족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제가 갔을 땐, California state food fair 가 하고 있었고 올드타운도 가 볼만 했어요! 참고로 레딩이 도시가 아니고 정말 작은 컨츄리인데요. 그 점 알고 가야 실망도 안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고학년이라 이제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후회가 돼요.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이 도전

해봤을 텐데 말이죠. 3주동안 미드에 들어 갔다 온 기분이었고,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평생 물
 랐을 사람들을 만나 정이 들었네요. 제 목표가 외국인 친구 사귀기였는데 목표 달성했어요. 지구
 반대편의 문화를 배우기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친구 만들기엔 딱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영
 어 말하기 듣기 이해 실력을 적날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 정도는 알아듣는 거고
 반은 눈치였는데, 이제 미드도 그렇게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ool Party



Kayaking



식당이 추우면 나와서 피크닉처럼 먹기



Burney Falls



Trio 고등학생들과 만남



Final Presentation